

공항 혼잡도 선제적 관리… 24일 점검회의

- 7.25일 ~ 8.11일 간 일 평균 45만명이 공항 이용, '19년 대비 96.5% 회복
- 인천공항의 출발객은 7.27일, 도착객은 8.4일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7월 24일(수) 오후 김포공항에서 하계 휴가 집중 기간(7.25~8.11) 중 공항별 혼잡 관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.

* (참석)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, 한국공항공사·인천공항공사 및 (여객) 국적사(10개) 임직원

○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휴가 집중기간(7.25~8.11일) 동안 공항 이용객을 일 평균 45만명으로 전망했다.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일 평균 39.5만명 대비 13.9% 증가,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'19년 같은 기간 일 평균 46.6만명 대비 96.5% 회복한 수치이다.

* 인천공항은 같은 기간 일 평균 21.3만명이 이용하며, '19년 대비 101.3% 회복 전망

- 한편, 혼잡이 예상되는 인천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출발 승객은 7월 27일이 가장 많고, 도착 승객은 8월 4일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*된다.

* 인천공항 7.27일 출발 승객: 11.6만명 / 인천공항 8.4일 도착 승객: 11.7만명

□ 먼저,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름 휴가철 안전 운항과 승객 편의 제고를 위해 공항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다. 그리고, 특별교통대책 등 승객 증가에 따른 공항 혼잡상황 관리 방안도 수립했다.

○ 두 공항 공사에 따르면 출발 항공편 몰리는 오전 시간에는 공항 이용객이 많으므로, 해당 시간대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들은 항공사 앱·누리집을 통해 사전 체크인을 하거나, 공항에서 셀프체크인·백드롭을 이용하여 탑승수속을 하면 공항 내 대기시간*을 줄일 수 있다.

* 인천공항은 앱(인천공항+)을 통해 비행기 탑승까지 예상 소요 시간을, 김포·김해·제주·대구·청주 공항은 앱(스마트공항)을 통해 비행기 탑승까지(국내선) 실시간 소요시간을 안내

- 또한, 인천국제공항은 스마트패스를 등록하면 출국장 진입 시 전용 라인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지방공항 국내선은 스마트 항공권을 등록하면 신분 확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빠르고 간편한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.

□ 한편, 각 항공사는 “하계휴가 집중기간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및 국제노선을 증편 운항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- 국내선은 수요가 많은 제주행 노선을 주 17회까지 증편하고, 국제선은 중국·일본·동남아 등 노선을 중심으로 주 86회까지 증편될 계획*이며, 구체적인 스케줄은 항공사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* 주요 증편 노선: (국내선) 부산-제주, 청주-제주, 김포-제주 등, (국제선) 보홀·칼리보 (필리핀), 오키나와·나리타·후쿠오카(일본), 지난·정저우·톈진·상하이(중국) 등

- 또한, “항공편 이용자는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갑작스런 지연·결항에 대비하여 항공권 구매시 연락처를 꼭 명기하고, 위약금·환불 조건 등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”고 전했다.

□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“이번 MS발 항공권 발권 시스템 장애 상황을 계기로, 각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대응 매뉴얼을 면밀히 점검하고,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재발 시 혼란이 없도록 할 것”을 요청할 예정이다.

- 또한, “여름 휴가철은 평소보다 항공편 운항이 늘어나고, 집중호우·태풍·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지연·결항이 우려되는 만큼, 연쇄적인 운항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항 스케줄을 관리할 것”을 강조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, “올해 국내공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승객들께서는 항공사·공항 공사의 안내 사항을 미리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”고 당부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신윤근 (044-201-4204)
		담당자	서기관	신익승 (044-201-4181)
			사무관	소지섭 (044-201-4189)
			주무관	최규열 (044-201-4282)